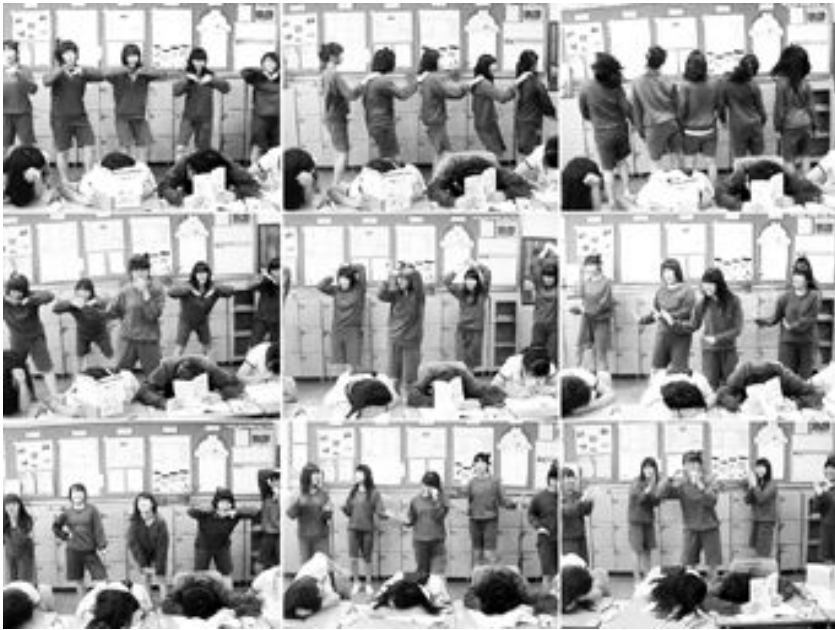


시끌벅적 e-스타



'Tell me' 이어 원더걸스 'So Hot' 열풍

올 여름은 'So hot'이다. 지난해 여름 전곡은 'Tell me' 열풍이었다. 남녀노소, 직업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기 여성 그룹 원더걸스의 히트곡 텔미 음악에 맞춰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인터넷 상에는 텔미 춤을 추는 주부·의경·학생들의 다양한 동영상도 올라 화제가 됐다. 또 다시 인터넷에 춤바람이 불고 있다. 원더걸스가 새로 발표한 소환이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색시, 발랄한 율동으로 인터넷을 휩쓸고 있다. 유치원생에서 주부들까지 소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이들의 모습은 각 포털 사이트 동영상 코너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덩달아 소환 안무 배우도 동영상 인기 급상승중이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오른 여성들의 소환 동영상도 2만 네티즌의 클릭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진한 초록색의 체육복을 입은 5명의 여성들이 교실을 무대 삼아 원더걸스로 변신했다. 입고 있는 의상 탓에 시급치 여성생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들의 공연에는 같은 반 친구들도 동참했다. 화면에는 원더걸스 역을 맡은 5명 외에도 4명의 학생이 등장해 공연과 상관없이 내내 엿드려 있어 네티즌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화면 밖에서는 친구들이 팬들처럼 노래를 따라부르며 진짜 공연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냈다. 동영상 본 네티즌은 "정말 귀여워요.", "팬들이 외치는 소리까지 흥내 내는 게 정말 웃긴다. 앞에 엿드려 있는 애들도 웃기고...", "그런데 체육복 색이 왜 그러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늘의 유머

재회 한 남자가 몇 년 만에 옛친구를 만났다. 친구가 그를 보면서 말했다. "자네 신수가 훨씬졌네! 차림새를 보아하니 결혼을 했나 보군. 셔츠도 깨끗하고 바지도 깔끔하게 다려있고." "자네 말대로 결혼했네." 그리고 그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마누라가 나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바로 세탁과 다림질이라네."

이에는 이 군인들이 태풍이 지나간 뒤 재해 지구에 대민지원을 나섰다. 고된 일에 지친 한 병사가 점심을 먹다가 취사병에게 투정을 부렸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군!" 그러자 취사병이 대꾸했다. "아, 그래? 그럼 이따 저녁때까지 기다려보라 고!"

엄마의 힘 한 청년이 으스스한 밤에 시골길을 운전하다 타이어가 고장 났다.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마침 반대쪽에서 차 한 대가 와 댔었다. 나이 지긋한 부인이 차에서 내렸다. "젊은이 뭐 도와줄 일 없는가?"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하는데 잭이 필요합니다."

마침 부인이 잭을 가지고 있어 청년은 차 수리를 끝낼 수 있었다. 잭을 돌려주며 청년이 물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인적도 드문 곳에서 낯선 젊은이를 도와려고 차를 세우는 게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부인이 웃음을 띤 채 차 안에 있는 백발의 할머니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가 같이 타고 계시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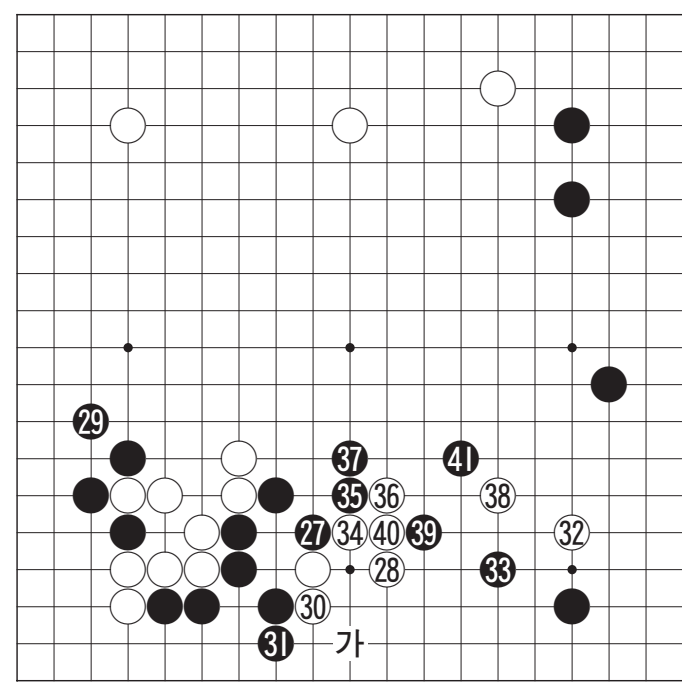
관찰야 한 꼬마 아이가 흙탕물에서 침범거리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꼬마가 허리를 구부리고 그 물을 마

시려고 하자 그것을 본 엄마가 기겁을 하며 외쳤다. "그 물 마시면 안 돼! 그 물속에 작은 벌레가 많이 있어서 그걸 마시면 병이 난다고!" 그러자 꼬마가 엄마에게 말했다. "괜찮아 엄마, 내가 벌써 다 빨아 죽였으니까."

무슨 현상? 교수가 물리학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 "기러기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날아가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할까요?" "만유인력 현상입니다." "자유 낙하 현상입니다." 그러자 강의실 한쪽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극히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두 배 신문을 보던 남편이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이놈의 주식이 또 떨어졌잖아! 괜히 투자해서 손해만 보네." 그러자 옆에 있던 부인도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속상해요. 다이어트를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를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투자한 것 중에서 두 배로 불어난 건 당신 밖에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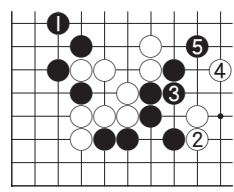
잘못 걸린 전화 전화벨이 울리자 남자가 전화를 받고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어린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전화번호가 123-4567이 아니가요?" "아닌데요." 잠시 말이 없던 아이가 다시 물었다. "그럼 왜 수화기를 드셨어요?"



제17회 광일초

우변을 의식한 공방

4회전 2국 3보 (27~41) 白 김광식 5단 (주)송림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참고도>

'정석은 알고나서 잊어버려라'는 격언이 있다. 이것은 틀에 얽매이지 말고 주변 배색이나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된다는 뜻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으로 두 대국자가 정석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오른쪽 흑의 중국시 포석을 의식하고 있다. 박광주 5단의 흑 27도 우변을 키워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지키면 보통. 그러나 백이 2 이하 6까지 하면서 자리를 잡고나면 역시 오른

쪽의 흑 세력이 초라해진다. 기세를 중시하는 김광식 5단도 단연코 흑의 주문을 거부하고 즉각 28로 움직여 흑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거부한다. 흑 29가 일관성이 부족했다. 이 수로는 즉각 '가'의 급소로 달려 백이 쉽게 모양을 갖추는 것을 방해하고 싶었다. 백 30이 아픈자리며 재차 32로 절충해 초반전의 주도권은 백이 차지했다. 흑 41이 강력한 역습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윤성현 박카스배 8강 진출

윤성현 9단이 23일 제13기 박카스배 천원전 16강전에서 홍민표 6단을 맞아 299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반집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다. 이로써 윤성현은 올해 전적 19승10패를 기록했고, 홍민표와의 역대 전적도 2승2패로 균형을 이뤘다. 또 강동윤 8단과 손근기 3단의 16강전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이 대회는 예선 통과자 12명과 본선 시드 4명(원성진, 강동윤, 안조영, 이세훈) 등 16명이 토너먼트를 벌여 우승자를 정한다.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에 40초 초읽기 3회, 상급은 우승 2천만원, 준우승 1천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리빙 센스

날씬한 허벅지와 종아리를 위한 마사지

- 1. 다리에 오일을 바른 다음 허벅지 바깥쪽과 안쪽을 주먹으로 번갈아가며 문질러 준다.
2. 양쪽 엄지를 모아 무릎 주변을 꼭꼭 눌러준다.
3. 주먹을 쥐고 무릎에서부터 발 쪽을 종아리를 문지르면서 마사지를 해준다.
4. 엄지 손가락으로 발등을 눌러 지압해준다.
5. 한쪽 발을 다른 쪽 허벅지 위에 올린 후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압한다.
6. 발 쪽에서 종아리, 허벅지 순으로 차차 올라가며 손으로 주물러 준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24일(음 6월 22일 乙丑)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y.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DermaPlast)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ext about skin care products.

굿모닝 잉글리쉬 <1210> 오하오우 니혼고 <1210> 니하오 쑹구워 <187> 한자 이야기 <827>

How's Your Schedule? 스케줄이 어떻게 되요? A: How's your schedule this morning? B: Well, I'm pretty busy. A: What do you have planned? B: First, I'm meeting a friend at Times Square. A: What are you doing after that? B: I'm going to the library to return some books. A: You are busy. Good luck! B: Thank you. A: 오늘 아침 당신의 스케줄이 어때요? B: 글썽, 매우 바쁠 것 같아요. A: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B: 먼저 타임스퀘어에서 친구를 만날 거예요. A: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건데요? B: 도서관에 책 몇 권을 반납하러 갈 거예요. A: 정말 바쁘군요, 잘 되길 빌어요. B: 고맙습니다.

一羽(いちわ)いくらぐらいなんですか? 한 마리 얼마지요? A: ヨーロッパで犂牛(きょうぎゅうびょう)のために牛が何萬頭(なんまんとう)も 殺(ころ)されているらしいですね。 B: ええ、それで他(ほか)の色な肉を食べているようですよ。 A: そう言えば、うさぎの肉はおいしいと聞きましたけど... 一羽(いちわ)いくらぐらいなんですか? B: さあ、賣(う)ってるんですか? うさぎはペットだから 食べるのはちょっとね。 A: 유럽에서는 광우병 때문에 소가 몇 마리씩이나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B: 네, 그래서 다른 여러 종류의 고기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A: 그리고 보니 토끼고기가 맛있다고 들었는데, 한 마리 얼마지요? B: 글썽요, 파나요? 토끼는 애완동물이니까, 먹기에는 좀...

这是什么? 이것은 무엇입니까? A: 这是什么? zhè shì shénme? B: 这是手机。 zhè shì shǒujī. A: 那是什么? nà shì shénme? B: 那是照相机。 nà shì zhàoxiàngjī. A: 이것은 무엇입니까? B: 이것은 핸드폰입니다. A: 이것은 무엇입니까? B: 이것은 카메라입니다. 手机 [shǒujī] 핸드폰 照相机 [zhàoxiàngjī] 카메라 这 [zhè] 이것 那 [nà] 그것

擻髮難數(탁발난수) 뺨을 탁, 턱턱 발, 어려울 난, 셀 수 탁발난수(擻髮難數)는 머리카락을 뽑아 다 헤아리기 어렵다는 뜻으로, 죄악(罪惡)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비유한 말이다. 이 말은 전국시대의 범저(范雎)와 수가(須賈)의 고사(故事)에서 유래한다. 본래 위(魏)나라 사람이었던 범저는 중대부(中大夫) 수가의 음해(陰害)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살아나진(秦)나라로 도망쳤다. 이듬해 장륙(張祿)이라 바꾼 범저는 뛰어난 재능으로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얼마 후에 진나라가 위나라를 공격하려 하자, 위나라는 수가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화친을 교섭하도록 하였다. 수가는 재상 장륙이 옛날의 범저인 줄 모른 채, 은갖 방법을 동원하여 재상을 만나고자 하였다. 이윽고 범저가 장륙임을 알게 된 수가는 범저 앞에 나아가 앞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응시를 구하였다. 범저가 "너의 죄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묻자, 수가는 "제 머리털을 모두 뽑아서 잇는다고 하더라도 모자랄 것입니다(擻髮之難, 以續實之罪, 尙未足)"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범저는 수가의 목숨은 살려 주겠지만, 위제는 응시할 수 없으니 그의 목을 베어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史記, 范雎蔡澤列傳) 이 고사에서 '탁발난수'라는 고사어가 성립되었던 것이다.